견관절 질환으로 수술한 환자에서 SF-36을 이용한 삶의 질 측정과 이에 영향을 주는 임상적 요소들의 분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오주한 · 김우성 · 김재윤 · 공현식 · 류미선 · 김혜미

목 적

삶의 질 측정 도구인SF-36으로서 견관절 질환 환자들을 수술 전후에 평가하고, 환자의 연령, 성별, 이환 기간, 질환명, 통증 정도, 관절 운동 범위, 우세수 이환 유무, 회전근개 파열의 크기, 회전근개의 지방 침윤의 정도 등과의 상관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견관절 질환으로 견관절경 수술을 시행한 312명의 환자들 중,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전향적인 추시가 가능한 132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 3, 6, 9, 12개월에 SF-36을 이용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수술 후 삶의 질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고, 상기 9개의 임상적 요소로 나눈 각각의 집단들에 대하여 SF-36의 8가지 분야의 점수, 신체 요소 및 정신 요소 종합 점수로, 각종 임상 요인들에 따른 삶의 질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술 후 삶의 질은 지속적인 향상을 보였으며, 특히 신체 요소 종합 점수가 정신 요소 종합 점수에 비하여 그 향상도가 유의하게 컸다.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 향상이 높았으며, 52세 미만의 환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수술 전 평가에서는 견관절 불안정성 환자가 가장 높은 삶의 질을 보였고, 상부 관절와순 파열, 회전근개 질환의 순서를 보였으나, 수술 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회전근개 질환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 향상 정도가 가장 좋았다.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에 따른 분석에서도, 3 cm이상의 대 파열과 광범위 파열에서 수술 후 삶의 질 호전 정도가 더 높았다. 수술 전 통증이 7이상이었던 군에서는, 다른 요소들의 결과와는 달리 신체 요소 종합 점수뿐 아니라 정신 요소 종합 점수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삶의 질 회복을 나타내었다. 회전근개의 지방 침윤이 심한 경우에는, 지방 침윤이 적은 경우에 비하여 초기 삶의 질은 낮았으나, 수술 후 6개월부터는 차이가 없었다. 그 이외 관절 운동의 제한, 우세수의 이환 여부나 이환 기간에 따른 수술 후 삶의 질 변화는 차이가 없었다.

결 론

SF-36을 이용한 견관절 수술 후 삶의 질의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향상되며, 남성, 52세 이하, 회전근개 질환, 3 cm 이상의 회전근개 파열을 보이는 경우에서 수술 후 삶의 질 회복이 우수하였고, 회전근개의 지방 침윤은 수술 후 초기의 삶의 질 저하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통증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견관절 질환의 치료의 방향이나 수술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각종 임상 인자들이 삶의 질 측면의 예후 판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견관절 질환, 삶의 질, 임상 인자